

CDI 세미나 2014-10

신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워크숍

2014. 2. 21

신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워크숍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의 시대적 변화는 새로운 균형정책을 요구 함.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은 광역자치, 기초자치, 동네자치 등 다차원적 공간 균형을 추구
- 특히, 주민자치 및 주민 역량, 공동체를 강조하는 동네자치는 공간균형을 위한 기본 단위로 중요성이 매우 큼
- 따라서 신균형발전을 위한 동네자치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2.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21(금), 오전 11:00 - 13:00 / 충청남도 도청(중회의실)
- 주제 발표
 - 제1주제 : 뉴잉글랜드타운미팅의 교훈 - 21세기동네자치의 발전 방향 (안성호 교수, 대전대)
 - 제2주제 : 가시리, 문화를 입다 - 더 재미진 마을 만들기 (안봉수 가시리추진위원장)
- 참석대상
 - 충청남도 도지사, 강현수(충발연위원장), 성경룡(한림대), 안성호(대전대), 안봉수(제주 가시리 추진위원장), 안정선(충남여성정책개발위원장), 이상선(분권균형발전전국연대 상임대표)
 - 충남도청 관계자, 원내외 희망자

3. 시간계획

11:00~11:10	개회식	
	개회사(2분)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인사말(3분)	송재호 (제주대 교수)
	인사말(5분)	도지사
11:10~11:50	주제 발표(사회: 성경룡, 한림대 교수)	
	(발표1) 뉴잉글랜드타운미팅의 교훈- 21세기동네자치의 발전 방향	안성호 (대전대 교수)
	(발표2) 가시리, 문화를 입다- 더 재미진 마을 만들기	안봉수 (가시리추진위원장)
11:50~13:00	(자유토론) 전 체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의 교훈: 21세기 동네자치의 발전방향

2014. 2. 21.

안성호 (대전대 교수)

Human-Scale Democracy 실험

-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 도시국가 로마의 민주주의 -> 로마공화정
- 르네상스 초기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공화정
- 스위스 코뮌자치
-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 타운미팅(Town Meeting)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입법부
- 대면 직접민주주의: 주민이 직접 법률 제정, 세금 결정, 예산안 확정 등 지역사회 현안 결정, 주요 공직자 선출
- 타운미팅과 아테네 민주주의
- 규모와 민주주의
- 교훈: 분권주의와 임파워먼트

"인간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치할 수 있다." (Frank Bryan, 2004)



동네자치의 중요성

- Robert Dahl (1967): 중국상자 비유와 다층복합민주주의
- Benjamin Barber (1984): 강한 민주주의와 동네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개인은 동네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체험한다."
- Robert Putnam (2000): 온라인 소통과 동네민주주의
"온라인 소통은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면 소통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충만한 공동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 대면공간에서 서로 만나 상호작용해야 한다."

- Michael Sandel (1996): 글로벌 민주정치와 동네자치

"세계화 시대에 동네정치는 더 중요해졌다. 오늘날의 자치는 동네로부터 국가로, 나아가 세계에 이르는 다층 다중심적 설정 속에서 역할을 다하는 정치를 요구한다."

"연방주의는 최선의 자치는 주권이 분산되고 시민권이 다양한 시민적 참여의 장에서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 UN국제지방분권지침 (2007): 직접참정과 동네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 적응한 동네의회, 지역사회의회, 전자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 주민발의, 주민투표 등 새로운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Solzhenitsyn의 Cavendish 타운 송별사

"지금 (1994년) 러시아는 빈곤이 만연하고 인간존엄성 기준이 무너지고 무법과 경제적 혼란이 난무하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런 곤경은 체제 유지를 위해 6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70년 공산주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고통스런 대가다."

"나는 (17년 간 망명생활을 하면서) 이곳 Cavendish와 주변 타운들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상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분별 있고 확실한 과정을 관찰해왔다. 애석하게도 러시아는 아직도 바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직 갖지 못했다. 이것이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이다."

Crawford 기자의 Westborough 타운 이주경험

"2012년 봄 인구 18,272명의 Westborough 타운(MA)에 이사회 해 참석한 타운미팅은 놀라웠다. 450명의 주민이 고등학교 강당에 모여 경찰순찰차 구입에서 대마초 진료소 구역설정에 이르기까지 타운의 현안을 직접 결정했다. 타운미팅은 이기적 주민들이 언쟁을 벌이는 난장판이나 은퇴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모이는 지루한 회의가 아니었다."

"타운미팅은 축제 분위기였다...오후 1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중간에 2시간의 식사시간이 주어졌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부의안건을 연구 검토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재산세율 인상을 비롯한 모든 안건은 차분하게 처리되었다. 교육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두 가지 개정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교육위원회회의가 제안한 예산안이 6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Sharon 타운 (MA) 정부형태 변경 시도

- 인구 17,612명
- 2013년 CNN Money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
- 정부형태: Open Town Meeting + 3명의 행정위원(selectmen)
- 2009년 헌장위원회가 17명의 Representative Town Meeting (RTM)과 유권자 3%의 청구가 있는 경우 RTM의 결정에 대해 검토하는 Open Town Meeting을 두는 개편안 제시
- 이 개편안은 2010년 5월 18일 열린 타운선거에서 실시된 투표결과 찬성 1,123표, 반대 2,305표로 부결

뉴잉글랜드 타운자치의 기원과 성격

-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 뉴잉글랜드에 상륙
- Mayflower Compact -> 우연과 폭력이 아니라 숙고와 선택에 의한 헌정질서 형성
- 1630년대 초 식민지타운에서 비공식 타운미팅 개최
- 주로 종교 심사를 통한 주민자격 부여
- 초기 타운미팅의 참석은 의무, 불참의 경우 벌금부과
- 타운정부 구성: 타운미팅(직선 의장: Moderator)
+ 3-11명의 직선 행정위원(selectmen) 등
- 타운정부 생명력: 과세권을 포함한 막강한 자치권

뉴잉글랜드 타운자치 평가

- Thomas Jefferson (1743-1826)
 - 카운티를 뉴잉글랜드 타운과 같은 강력한 "소 공화국"으로 세분할 것을 제안
 - 타운정부의 일반교육에 대한 역할 강조
- Ralph Emerson
 - 1835년 Concord 타운 건립 200주년 기념연설 :
"미국의 건국과 성공적 정착은 타운정부의 덕택이다."

- Alexis de Tocqueville (1835)

"타운미팅과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 타운미팅에서 자유는 주민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다. 타운미팅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사용하고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타운 하나하나는 본래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타운은 그 권력을 중앙권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일부 자주성을 주에 양보했다."

"뉴잉글랜드 주민의 뜨거운 애향심과 높은 공공정신은 타운공동체의 막강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함양된 것이다."

- James Bryce (1888)

"타운미팅은 완벽한 자치학교다. 내가 관찰한 지방정부제도 중에서 타운미팅은 시민에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교육적인 최선의 정부제도다."

-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전역에 확산될 것을 예견
- 그러나 타운미팅정부와 지역정부인 카운티가 결합된 혼합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19c 말 – 20c 초반 지방정부 개혁자들의 평가

- 타운미팅 폐지론
 - Machine Politics와 Boss Rule의 도전과 낮은 참여율 비판
-> 타운정부 폐지 주장
 - 대다수 타운정부(특히 주민 1만 명 이하) 건재
- 타운미팅 개혁론
 - 타운미팅의 민주성과 어느 정도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
 - 낮은 참여율의 2대 원인: 규모 증가와 자치권 감소
 - 그러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

Open Town Meeting의 개혁

- 일부 타운정부의 타운미팅 개혁 추진
 - 전체 타운 중 1/8 Representative Town meeting 전환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인구 12,000명 이상 타운 대상)
 - 타운 매니저 제도 도입
 - 1914년 매사추세츠 주법 제정
 - 1950년대 코네티컷, 메인, 버몬트 주법 제정
 - 재정위원회(위원 9명-15명) 제도 도입
 - 1910년 매사추세츠 주법 제정
 - 주민 6,000명 이상의 타운 재정위원회 설치
- 전자민주주의 활용 시도

타운미팅에 대한 새로운 관심

- 대도시 기초정부로서의 가치 재인식 -> 도시분권실험
- 참여율(평균 20%)에 대한 새로운 관점
 - "주민의 참여부담을 고려할 때 타운미팅은 인간본성의 한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모범적 참여민주주의에 가깝다."
 - (Frank Bryan, 2004)
- 타운미팅의 긍정적 효과 확인
 - 사회적 거리와 소외감 감소
 - 시민정신 함양과 사회자본 형성
 - 뉴잉글랜드 6개 주 중 5개 주 사회자본 10대 주에 포함
 - "타운미팅은 시티즌십의 학교다" (Frank Bryan, 2011)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기초정부 규모

구 분	기초정부 수 (개)	기초정부 평균인구 (명)	기초정부 평균면적 (km ²)
프랑스	36,763	1,743	15
스위스	2600	3,002	15
스페인	8,109	4,998	62
독일	14,805	5,452	24
미국	39,006	6,623	240
이탈리아	8,104	7,040	37
핀란드	416	12,620	713
스웨덴	290	31,240	1,417
덴마크	98	56,127	433
일본	1,772	67,313	210
영국	433	128,061	560
한국	227	225,000	423

한국 읍, 면, 동, 리, 통의 인구규모

	읍	면	동	리(읍)	리(면)	통(동)
평균 인구	20,981	4,250	19,845	561	179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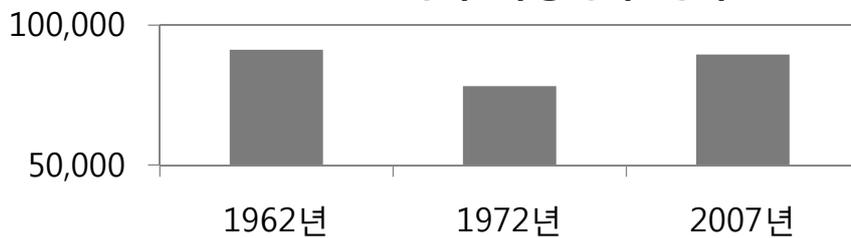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참고

다중심체제의 나라,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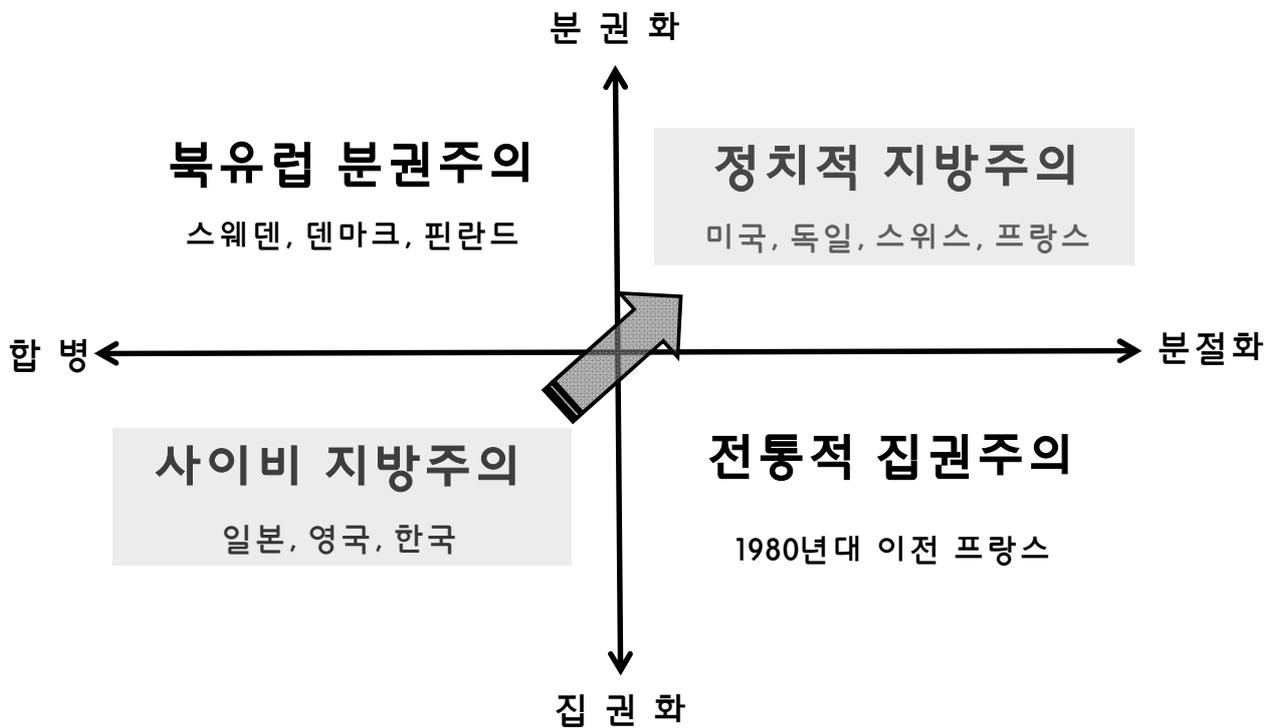
(단위: 개)

정부종류	1962년	1972년	2007년
정부 총수	91,337	78,269	89,527
중앙정부	1	1	1
주정부	50	50	50
지방정부 총수	91,186	78,218	89,476
County	3,043	3,041	3,033
Municipality	18,000	18,517	19,492
Township & Town	17,142	16,991	16,519
School District	34,678	15,781	13,051
Special District	18,323	23,885	37,381

1962~2007 미국 지방정부 총수



지방자치구조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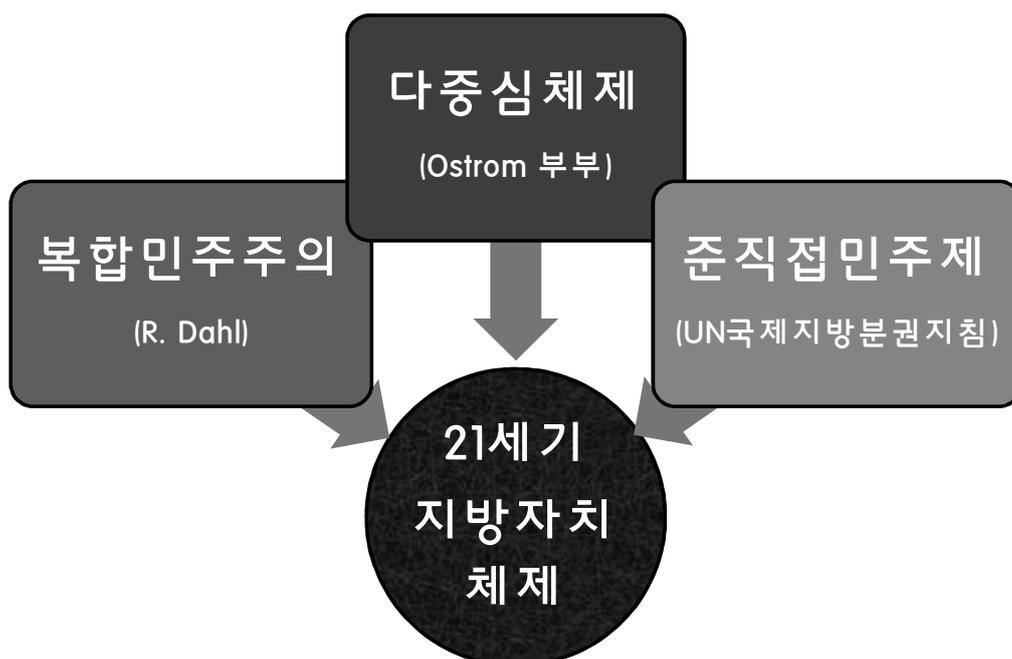
한국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특징

- 중앙의 강제, 강요에 의한 자치체제 개편
 - 마산, 창원, 진해의 합병사례 (조혜승 & 문명재, 2013)
- 합병편집증 -> 극단적 단일중심체제 형성
 - 세계 최대 기초정부: 평균인구 22만5천 명
 - 기초정부 수: 1960년 1,469개 -> 2014년 227개
 - 1961년 읍면자치제 폐지
 - 1995년 40개 시와 38개 군 합병
 - 1998년 여수-여천군-여천시 합병
 - 2006년 제주 시군자치제 폐지
 - 2010년 마산-창원-진해 합병
 - 2014년 청주-청원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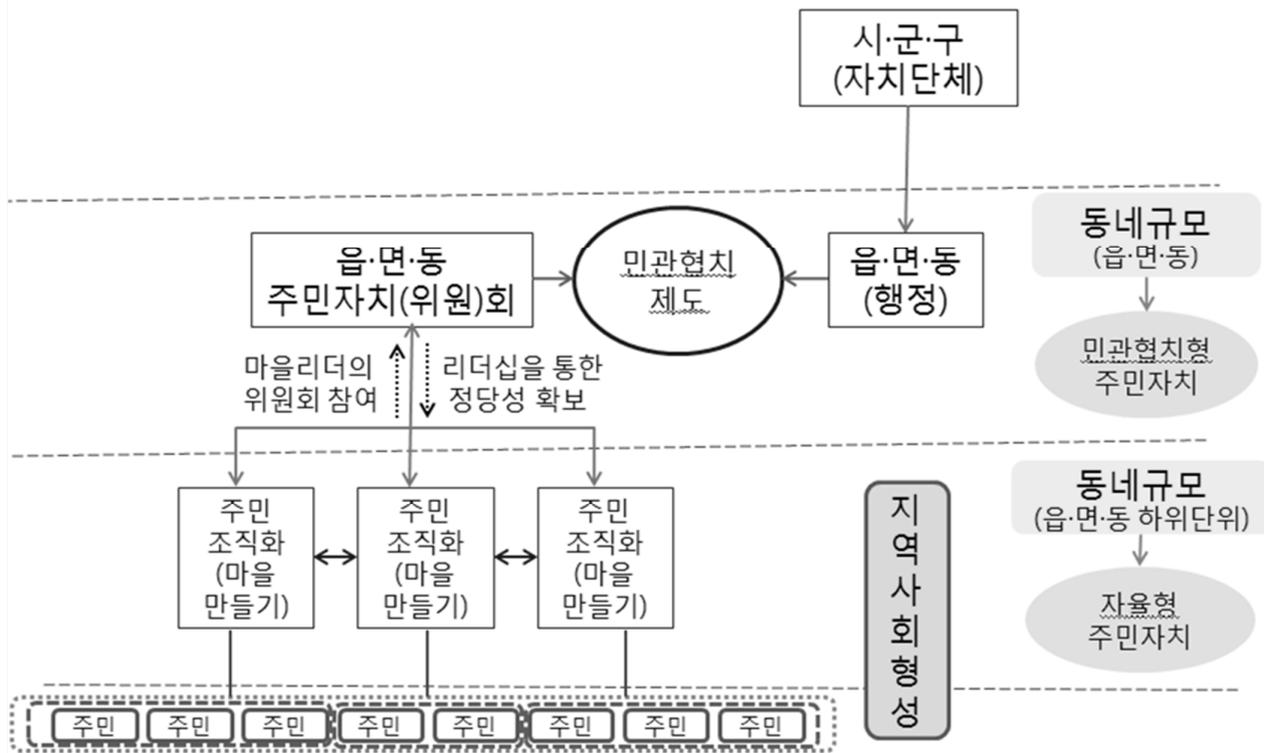
동네자치를 제약해온 읍면동 정책

- 동네자치에 역행한 읍면동 기능전환정책(1998)
 - 읍면동 기능과 인력을 약화
 - 주민대표성과 대의기구의 위상을 결여한 주민자치위원회
- 혼선을 빚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2010)
 - 읍면동 주민자치 진작을 표방하면서 읍면동 약화를 규정
 - 읍면동 행정과 분리된 주민자치회 구성 유도
- 칸막이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사업
 - 칸막이 중앙부처 행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난립과 비효율성
 - 읍면동 종합행정과 주민자치와 연결성 결여
- 3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13. 7. – 2014. 6)

21세기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방향



읍면동 동네자치 기본모형



21세기 동네자치 발전과제

- 시군 합병 및 자치구(군)의회 폐지안 철회
-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시군자치구 행재정권 강화
- 읍면동 준자치화
 - 읍면동 분권
 - 국가, 시도, 시군구 사무 중 동네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경찰, 사회복지 사무 읍면동 이관
 - 본청 관리인력 -> 현장인력 보강
 - 읍면동 재량사업 예산 증액, 읍면동 주민이 정한 회비를 지방세에 부과해 징수
 - 주민참여 확충
 -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의 대의기관화
 - 주민총회, 주민투표, 전자민주주의, 공동생산 활성화

읍면동 동네발전기획이란?

- 기획정책의 지방분권화
- 주민이 동네발전기획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 동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
- 주인의식과 능동적 시민정신 함양

동네발전기획 추진방안

- 추진 주체: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
- 주민투표: 상위계획, 법령,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동네발전계획안을 주민투표에 회부
- 조례 채택: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동네발전계획을
도 조례로 채택
- 교부금 지원: 동네발전계획 지원 교부금 지원

2014년도 동네발전기획 추진과제

- 기관형성: 도 정책기획실 내 동네기획디자인팀 설치
- 매뉴얼 개발: 충남발전연구원 실행
- 시범실시: 2015년 하반기 도 전역 실시예 앞서
3개 읍면동 시범실시
- 2014년 소요예산: 경비: 1억 2천만 원
(매뉴얼 개발: 2500만 원, 교육: 1000만 원, 3개 읍면동 시범
실시 3000만 원, 공청회, 주민투표 등 3000만 원 등)

감사합니다.

가시리, 문화를 입다.

- 더 재미진 마을 만들기 -



안 봉 수 추진위원장



발 표 순 서

1. 단절된 마을이 빗장을 풀고 세상과 만나다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3. 마을의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4. 주민들과 함께...
5.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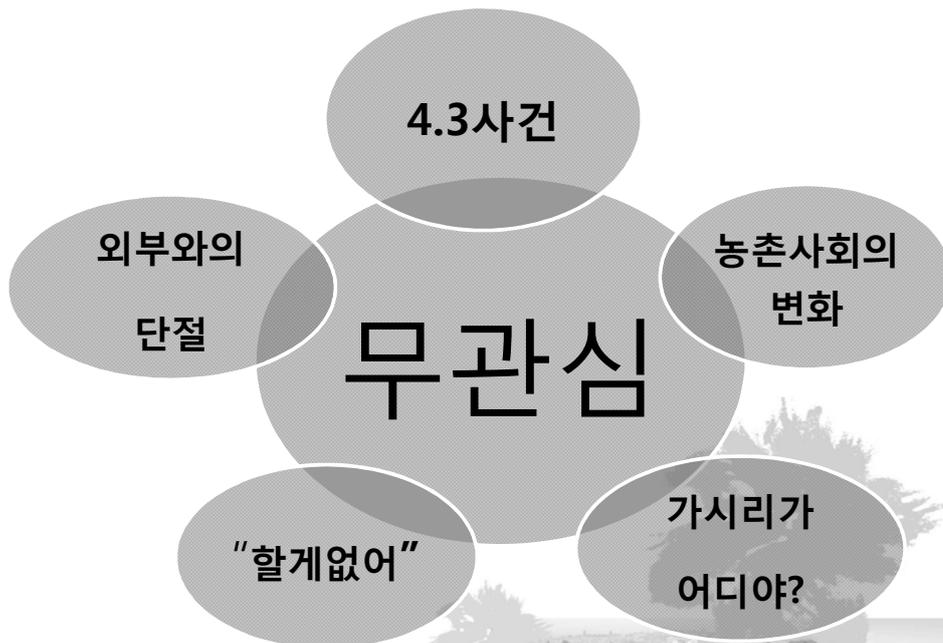




“단절된 마을이 빗장을 풀고 세상과 만나다.”



1. 단절된 마을이 빗장을 풀고 세상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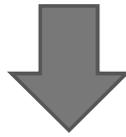
1. 단절된 마을이 빗장을 풀고 세상과 만나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9년 2월 선정)



신문화공간조성사업
(2009년 3월 선정)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문화의 시발점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사업비전

- 마을 권역사업의 시작점으로 주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역량 강화

차별화 추진전략

-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와 연구리서치 부분을 강화하여 초기부터 단계별 접근시도
- 마을내부와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임
- 지역만의 장소 특성상을 살리고 주민 스스로의 리더쉽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기본 계획서 작성

1. 주민 욕구조사
2. 자원 발굴조사
3. 전문가 연대
4.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나도 교육생...역량강화



농어촌리더양성과정



퍼실리테이션교육

위원장부터
교육을 통한
역량높이기



권역맞춤형 교육



문화리더교육



주민소통교육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나도 교육생...주민교육

사업 연차별 주민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

- 사업 1년차: 주민들과의 소통 필요 - 소통과 자존감 교육
- 사업 2년차: **사업의 이해** 및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마을만들기사업의 이해, 법인교육 등)
- 사업 3년차: **사업활성화** 위해 주민워크숍 개최
(교수, 전문강사가 아닌 농촌마을 사무장, 위원장, 사업관계자 초청)
- 사업 4년차: 그룹 맞춤형 교육으로 **효율성** 교육효과 증대
노인회 - 컴퓨터 교육
부녀회 - 음식강좌
청년회 - 지역리더 강좌
어린이, 학부모 - 자연물공예교육 등



사업이 완료후에도 꾸준한 주민교육으로 역량강화에 노력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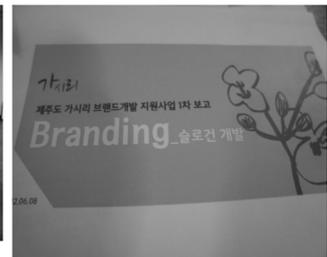


주민역량강화사업 - 홍보마케팅

가시리마을만의 브랜드 개발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외부홍보 강화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네
트워크 형성

•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 가시리문화지도제작



www.jejugasiri.net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보고, 듣고, 고민하기 - 선진지견학



목적이 있는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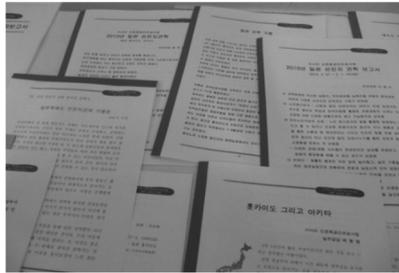


사전교육이 있는 견학

외유성 관광이
되어서는 안됨



현장토론이 있는 견학



결과보고서가 있는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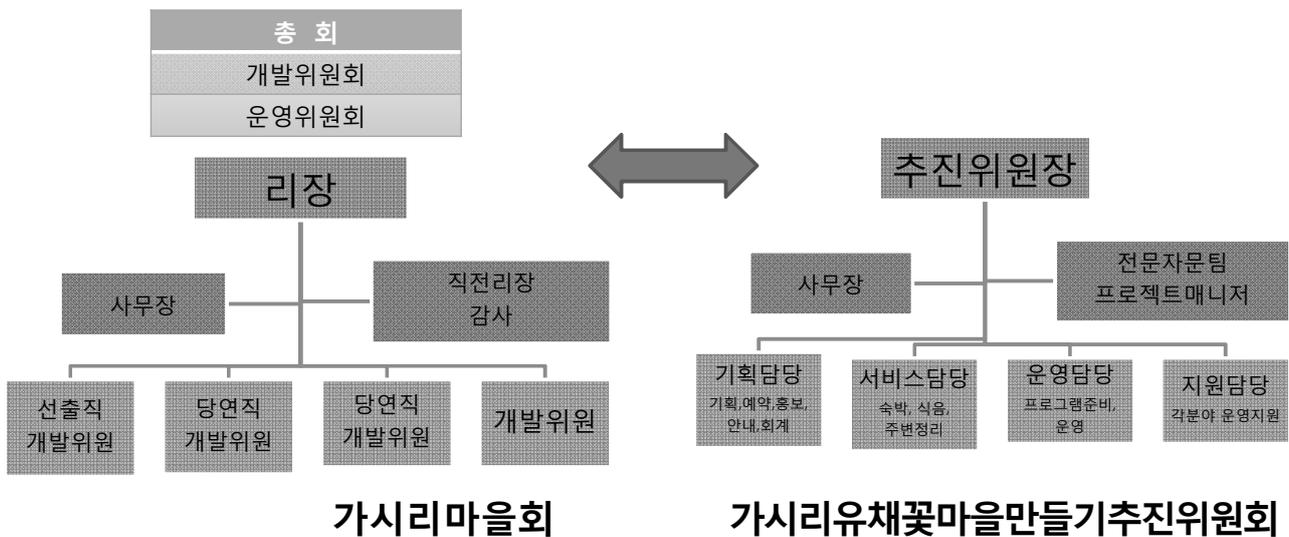


평가회가 있는 견학

2. 주민을 하나로 모으다.



체계적인 조직구성



권역에 맞는 조직구성으로 특색있는 사업추진 가능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1. 사업비전

- 마을내부 주민의 소통과 마을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한 문화활동 및 사업 활성화 위한 기반마련

2. 차별화 추진전략

-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주민들간의 새로운 소통의 통로 마련
- 외부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대외홍보와 더불어 마을외부와의 소통에 주력
-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참여 유도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사업기반시설 조성

1. 위치의 선정
2. 규모의 적정성
3. 사후 운영관리 방안



1. 유채꽃단지



2. 다목적광장



3. 유채꽃프라자



5. 조랑말박물관



6. 가시리창작지원센터



7. 가시리목공방



4. 가시리문화센터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사업기반시설조성 - 유채꽃단지 조성

❖ 가시리마을을 대표하는 유채꽃축제의 공간으로 조성

- 사업내용 : 잡목제거, 유채파종, 원두막설치, 송이길 조성, 팽나무식재, 매실나무 식재 등
- 2010년 4월, 2012년 4월 유채꽃축제 개최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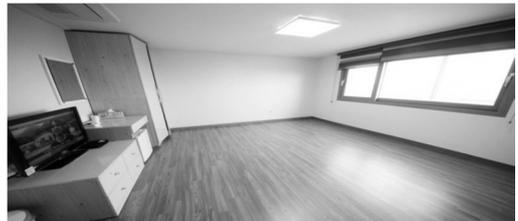


사업기반시설조성 - 유채꽃프라자

❖ 방문객과 관광객, 마을주민과 연결되는 도농교류의 거점 역할

❖ 주요기능 : 커뮤니티(회의, 교육), 홍보/전시/판매, 방문자센터, 식당, 옥상카페, 숙박시설 등 다목적 공간 조성

❖ 가시리조랑말체험공원과 연계하여 지역활동화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도농교류 기반 확충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사업기반시설조성 - 돌담정비 및 꽃길조성

리장+위원장+동장+주민+공사감독+공사업체

→ 함께 아름다운 마을안길 조성위해 현장파악, 사업마무리까지 주민들이 꼼꼼이 체크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사업기반시설조성 - 가시리문화센터

- ❖ 마을문화활동의 중심지로 마을주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지는 장소
- ❖ 전체부지 **499,734m²**
- ❖ 가시리문화축제 및 동아리발표회 등 “주민주체의 문화공간”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사업기반시설조성 - 가시리조랑말체험공원

- ❖ 전시물 위주의 전형적인 박물관 형태 탈피 에코뮤지엄, 체험형마을박물관
-> 체험*교육*소프트웨어 중심의 체험공간
- ❖ 주요기능 : 조랑말박물관, 승마장, 캠핑장
- ❖ 운영주체 : 가시리마을 (위탁운영 : ㈜이어도사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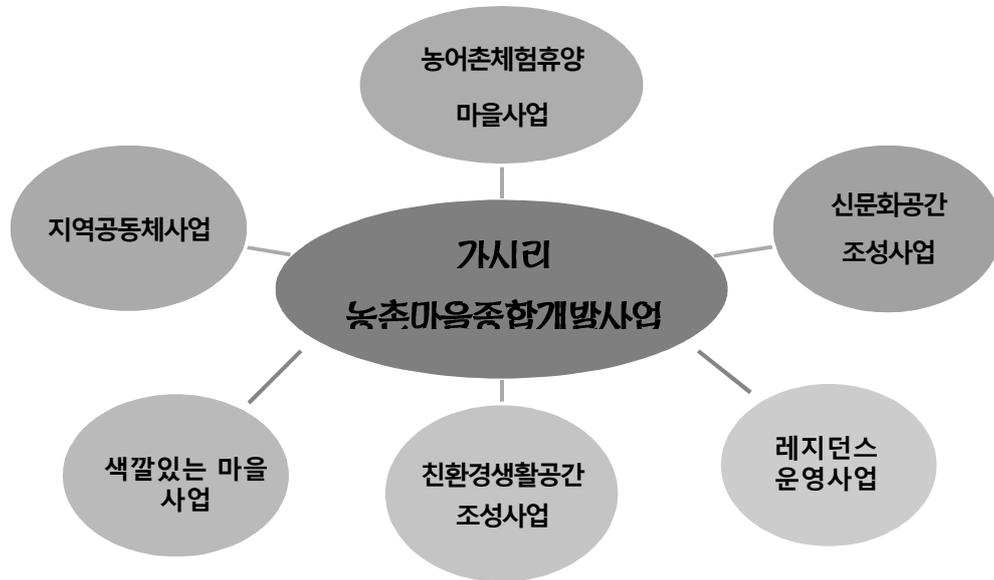
사업기반시설조성 - 가시리창작지원센터 (Artist-in-Residency)

- 예술인들은 작품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활동 지원
- 문화예술인과 마을 주민들 사이에 도농교류의 기반으로 작동,
- 마을의 문화적인 발전 및 주민공동체 형성 기여
→ 주민의 문화적 소통역량 강화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연계사업 통한 마을활력 극대화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소통하면 통하더라



바람땀 자연놀이



재미진 마을디자인



엄마와 함께한 재미진 마을디자인 체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워크숍 통해 주민들의 긍정적인 참여 유도에 성공



주민과의 교류, 홍보, 소통을 통하여 문화를 향유하면서 커져가는 주민들의 자긍심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전문가와의 연대



프로젝트매니저
박물관 관장



도청, 시청담당공무원

가시리마을



한국농어촌공사



가시리마을 리더그룹

3. 마을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라

도농연대 및 외부교류 활성화

* 타 단체와의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 협력체계구축 :

- 1사1촌
- 권역사업 관계자 모임(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이야기 카페 정모)
- 위원장, 사무장간 전국네트워크 형성, 교류 중요



“주민들과 함께...”

1. 사업비전

- 사업의 지원이 끝나고도 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산업과 연계하고
-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마을의 미래를 연다

2. 차별화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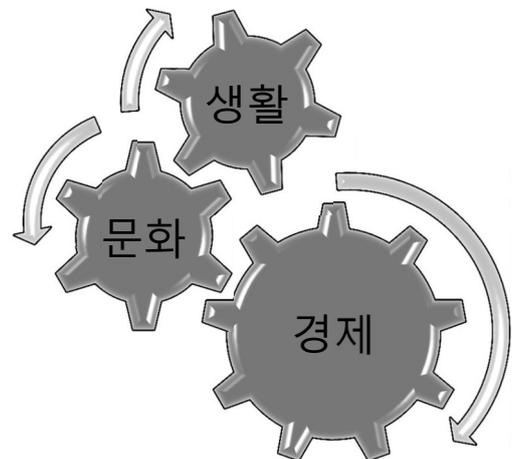
- 앞의 단계에서 준비한 역량과 콘텐츠를 마을의 산업과 연계되는 실용화 추진
- 주민들에 의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동아리 구성, 운영하여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진 마을 공동체 형성
-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문화생활 통해 지역주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

4. 주민들과 함께...

가시리문화학교

주민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소모임 운영 활성화로 주민공동체 구축

대상	프로그램	회원	비 고
어린이	어린이영상교실	10	영화3편 제작 각종대회우승
	스포츠댄스동아리	25	
부녀자	타악동아리	20	행사초청공연 감물, 야생차
	스포츠댄스동아리	30	
	천연염색교실	50	
중장년	국궁교실	15	큰사슴이오름앞 국궁장 조성
	신나는노래교실	25	
노인회	기공동아리	45	전도대회 우승
	신나는 노래교실	25	
전체 대상	약초기행	30	외부인에 인기
	전통등공예교실	20	
	승마아카데미교실	20	
	생활목공교실	20	



4. 주민들과 함께...



- 가시리마을 문화공동체의 시작이 된 가시리문화학교 프로그램 -



가시리밴드



타악동아리



국궁동아리



댄스스포츠



어린이댄스스포츠



기공동아리



약초체험교실



목공교실



어린이영상교실



전통등공예교실



승마아카데미교실



천연염색교실

4. 주민들과 함께...



체 험

타지역과 차별화된 가시리마을만의 특별한 체험거리 개발,
지역주민들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가시리자연스케치체험



국궁체험



천연염색체험



승마체험, 말똥쿠키만들기체험



갑마장길 트레킹체험

4. 주민들과 함께...



가시리 걷는 길 조성

- ❖ 제주올레와 차별화된 가시리만의 트레킹코스 개발
- ❖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준비한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코스 개발
- ❖ 가시리 걷는 길을 통한 마을홍보 및 생태문화탐방 교육



-제주가시리 마을 문화를 엿보다-
가 림 질
(길이 14.4km, 경과시간 4시간30분)



-가시리의 목축문화를 통해 제주를 만나다-
갑마장길
(길이 20km, 경과시간 7시간)



쫄븐 갑마장길
(길이 10m, 경과시간 3시간)

4. 주민들과 함께...



축 제



봄 - 유채꽃축제



여름 - 가시리조랑말체험축제



가을 - 세계트레일런대회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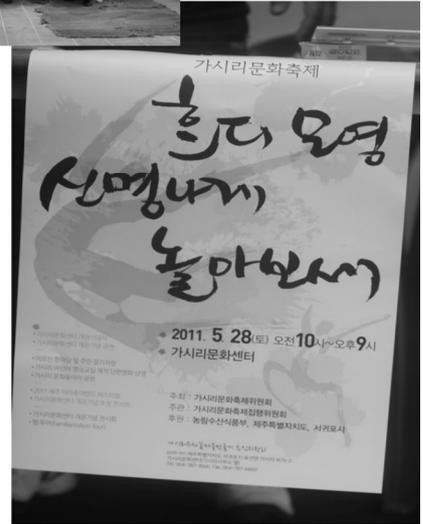
겨울 - 가시리문화축제

4. 주민들과 함께...

가시리문화축제

“주민들이 주인공이다.”

혼디모영 신명나게 놀아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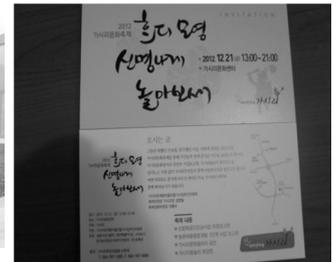


4.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주인공이다 - 가시리문화축제



◆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마을축제' -



◆ 주민들이 주인공인 '마을축제'



◆ 모두 모여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5.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마을인구 증가, 마을소득 증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귀농, 귀촌자 : 10가구 20명(2012년)
- 마을수입액 : 풍력, 문화센터, 마을임대수입의 증가



즐겁고 재미진 마을로 탈바꿈



5.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가시리마을의 변신은 무죄”
마을의 올바른 공동체 문화 형성에 시작



5.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미칠만큼의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으로...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농어촌마을 부문
-최우수상 수상
(서귀포시청 수상)

5.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휴먼웨어 중심의 마을만들기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마을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소득을 올리는데만 치중하다보면,
마을 고유의 문화는 뒷전이 되기 십상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마을내에
주민들에 의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동아리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올바른 공동체 형성 및
배려와 이해라는 마인드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등
주민들이 즐겨워하는 문화생활을 통해
주역주민의 균등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5. 미래를 여는 힘, 문화+사람



주민의 잠재력이 미래를 여는 힘이다.



가시리





